

한국어 서술절 비판 -통사 단위 설정을 중심으로-

목 정 수 (서울시립대학교)

Jungsoo Mok. 2014. A Critique on the So-called 'Predicate Clause' in Korean: With Special Reference to Syntactic Units. *Studies in Modern Grammar* 76, 101-126. This paper claims that particles and endings in Korean should be independent syntactic units from a typological perspective. And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grammatical status of particles this paper shows that the concept of 'nominative case' and that of syntactic function 'subject' have been much entangled in Korean grammar. One of the problems derived from the conceptual entanglement is the so-called 'predicate clause'.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origin of the misconception of 'predicate clause'. This paper uses three diagnoses to verify the misconception of predicate clause. The first one is a diagnosis through 'do-so test'. The second one is a diagnosis related to 'equi-subject constraint'. The last one is a diagnosis on the basis of 'valency'. These diagnoses lead us to the conclusion that the so-called 'micro subject' *kho-ka* 'nose-Nom' and *holangi-ka* 'tiger-Nom' in double subject constructions such as *Khokkili-nun kho-ka kil-ta* 'Elephants have a long nose' and *Na-nun holangi-ka mwusep-ta* 'I'm afraid of tigers' is no more subject, but a sort of object and that the real subject is the 'macro subject' *Khokkili-nun* 'elephant-Top' and *Na-nun* 'I-Top' in above-mentioned examples.

[Key words: determiner, nominative case, predicate clause, predicate phrase, subject]

1. 머리말

본고는 한국어에서 조사와 어미는 독자적인 통사 단위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특히 조사 '이/가'의 위상 정립에 따라 이 조사를 단순히 주어를 표시하는 '주격조사'가 아닌 조사 '은/는'과 동일 계열에 속한

‘한정조사’로 보았을 때, 당연히 연계되는 사실로서 ‘서술절’이라는 잘못된 개념의 비판을 통해 한국어 통사론의 새 질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궁극적 목표는 이른바 서술절 설정의 오류가 어디서 기원하는가를 밝히고, 서술절로 설정했던 단위를 절이 아닌 서술구로¹ 처리해야 이론적 측면에서도 정합적으로 한국어 통사 현상을 설명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도 응용 프로그램-형태소분석기, 구문분석기, 자동번역기 등등-의 개발에 정합적인 알고리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 서술절과 관련된 논의는 서술절을 인정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로 나뉘어 상당히 뜨겁게 진행된 바 있다(목정수 2005 참조). 본고의 기존 논의들과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본고는 서술절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되, 서술절 설정의 근거 없음을 대응언을 통한 진단법, 결합가 이론(=논항구조)을 통한 진단법과 연결어미 구성을 통한 진짜주어 찾기 진단법을 사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필자가 아는 한, 이러한 검증은 국어학계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본 논의를 통하여 한국어의 특수성과 보편성의 문제가 좀 더 객관적인 잣대로 검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본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미국 구조주의의 기술주의나 분포 개념에 입각하여, 한국어 형태론과 통사론의 경계, 즉 단어를 둘러싸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유형론적 시각에서 한국어의 위치를 객관화시켜 보고, 단어 규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조사와 어미의 통사적 단위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반성해 본다. 단어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작업과 단어를 ‘음운론적 단어’, ‘통사원자’ 등으로 해체하여 새롭게 조사와 어미를 통사 단위로서의 ‘단어’로 재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서술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 주어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짚어본다. 이어 앞에서 언급한 검증 절차를 통해서 ‘서술절’ 설정의 부당성과 ‘서술구’ 설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한다.

1 이른바 이중 주어 구문에서 안긴 서술절이라 한 구성은 절(clause)이 아니라 구(phrase) 차원의 존재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선생님 설명이 이해가 된다’나 ‘나는 선생님 설명을 이해를 했다’ 구성의 통사적 틀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다만 ‘되다’의 특성으로 술어 명사(=이해)나 나머지 내부 논항(=설명)이 ‘가형 성분’으로 실현되고 ‘하다’의 특성으로 술어 명사(=이해)나 나머지 내부 논항(=설명)이 ‘틀형 성분’으로 실현된다는 차이가 있다(목정수 2005, 2013c).

2. 기본 개념

2.1. 통사 단위로서의 조사와 어미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조사와 어미를 왜 통사 단위로 보아야 하고, 그것들이 굴절요소가 아니라 독자적인 문법적 단어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하는 점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단어와 연계된 개념이 ‘음운론적 단어’, ‘어휘적 단어’, ‘문법적 단어’, ‘어절’, ‘성분’, ‘형태적 구성’, ‘통사적 구성’ 등의 개념이다. 여기서는 허웅(1983)을 중심으로 조사를 ‘준굴곡법’으로 처리하는 입장을 소개하고, 소위 형태적 구성과 통사적 구성을 구분할 때, 조사를 ‘준굴곡법’ 요소로 보게 됨으로써 원칙적으로는 통사적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 형태적 구성으로 취급된 경위를 알아보도록 한다. 이러한 모순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만 궁극적으로 본고의 최종 목표인 서술절의 부당성을 드러내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웅(1983)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어 문법서들의 기본 배경은 Bloomfield (1933) 같은 미국 구조주의의 기술주의적 방법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소 자립 형식’이라는 개념, 즉 음운론적 단어의 개념에 입각하여 단어를 정의하고, 또한 굴절어의 굴절 개념을 통하여 단어를 정의하게 되면, 조사와 어미를 형태적 구성을 하는 단어의 내부 요소로 보게 된다. 결과적으로 한국어의 통사 단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할 수밖에 없게 된다. 허웅(1983)에서 불가피하게 조사의 사용을 ‘준굴곡법’으로 규정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굴절어로 분류되는 인구어의 굴절요소들의 문법적 지위와 교착어로 분류되는 한국어의 문법요소인 조사와 어미와의 차이를 알아보려면, 우선 인구어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라틴어에서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로망스어들로 분기되어 가면서 나타난 지배적인 변화 현상은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던 굴절어미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순이나 전치사에 그 역할을 넘겨주면서 소실되었다는 것이다. 이때 라틴어의 곡용어미는 독립적인 통사 단위를 이루지 못한다. 반면에, 라틴어의 곡용어미에 대당하는 프랑스어의 전치사는 독립적인 통사 단위가 된다. 라틴어에서는 어근 또는 어간과 격어미

가 융합된 형태가 랑그의 기본 단위가 되므로, 격어미를 통사론의 최소 단위로 따로 떼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의 패러다임(paradigm)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프랑스어의 전치사는 하나의 독립적인 통사 단위이므로, 전치사와 명사구의 결합을 패러다임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한국어에서 명사와 조사의 결합을 패러다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명사와 조사의 결합을 형태적 구성으로 보는 것은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동사와 어미의 결합도 마찬가지이다. 이 결합은 진정 통사적 구성을 이루는 것이다. 조사와 어미의 비자립성, 동사 어간의 비자립성을 들어 자꾸 단어를 음운론적 단어로 규정하려 들면 음운론적 층위와 통사론적 층위를 혼동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자립성이란 기준은 통사 단위를 설정하는 데 직접적인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 ‘무슨 뜻이야?’에서 ‘이다’가 ‘뜻’에 음운론적으로 의존적이라 해서 이를 독자적인 통사 단위로 못 볼 이유가 없다. 통사적으로 보면, 이 ‘이다’는 ‘무슨 뜻’이라는 명사구와 결합하는 통사 단위인 것이다(목정수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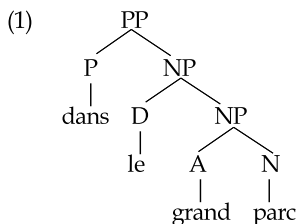
2.2. 통사 단위로서의 조사의 체계

본고는 조사의 문법적 지위를 통사 단위로 보는 것 자체로도 전통문법과 다르며, 조사 체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전통적 시각과 차이가 있다. 방법론이 다르기 때문인데, 본고의 조사 체계는 기욤(Guillaume)의 정신역학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² 정신역학론은 기저에 분포주의 시각이 깔려 있고 심리적 작용시간(temps opératif)에 근거한 역동적 모델이다.

기욤의 명사 분석은 문법요소—성, 수, 격, 외연범위, 인칭—를 분포를 중심으로 하되, 그 요소들이 심리적 작용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현되는 동적 과정으로 재구성하는 데 그 특성이 있다. 따라서 현대 생성문법에서 제시한 ‘NP 분석’ 또는 ‘DP 분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Valin 1981 참조). 그리고 한국어 통사론 학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말마디’나 ‘어절’, ‘성분’의 개념과도 차이가 있다. 여기서 잠시 본고에서 기욤의 이론을 원용하여 채택한 명사구

² 기욤의 이론은 소쉬르(Saussure) 이론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독창적인 언어이론으로서 후기구조주의 사조에 속한다. 목정수(2009a)에서는 기욤의 ‘동역학적 이론’을 현대국어 분석에 적용하여 조사 실현의 원리를 규명하였다.

확장 구조의 분석 방법이 다른 모델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간단히 보이고자 한다.³ 전통적으로 명사는 다음과 같은 확장 구조를 갖는 것으로 상정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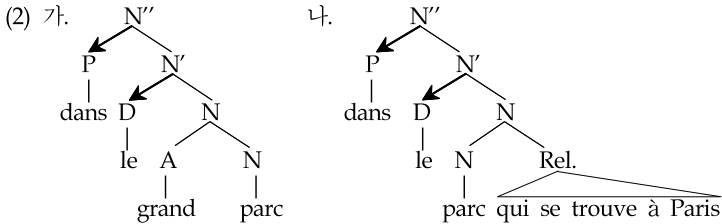
이러한 나무그림의 표상 방법에 대해 목정수(2009a)에서 비판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형태와 의미 간의 중심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을 하였다. 형용사와 관사를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⁴ 둘째, 왜 관사와 명사의 관계가 전치사와 명사구의 관계와 달라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한 차원에서는 질료(=명사)를 중심으로 범주가 NP로 결정되고, 다른 차원에서는 형상(=전치사)을 중심으로 범주가 PP로 결정되고 있다. 시각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 평면적으로 주어니 직접목적어니 간접목적어니 하는 통사적 기능은 똑같이 문장 내에서 실현된 표층의 담화적 사실인데 주어나 목적어의 최대 투사는 NP로, 간접목적어나 처소어 등은 PP로 최대 투사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표면에 집착하고 언어의 실현과정, 즉 그 과정에 숨어 있는 시간의 흐름을 놓쳐서 그런 것이다. 구체적 예를 통해 말하자면, 랑그 차원의 어휘 목록에 있는 <avion(=비행기)>과 ‘je vais aller au Japon en avion(=저는 비행기 타고 일본에 갈 거예요)’이라는 문장에 실

3 국어학에서 생성문법의 ‘DP 분석’에 따라 격조사를 핵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임동훈(1991)을 필두로 하여 한정환(2003), 임동훈(2008), 엄홍준(2010) 등의 논의가 줄을 이었다. 핵 논의는 생성문법의 투사(projection)와 ‘X-bar’ 이론에 입각한 핵성(headness)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시각에서 볼 때 국어학계에서의 핵 논의의 문제점은 핵을 어휘적 핵과 문법적 핵으로 구분해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본고에서 원용하고 있는 기욤의 ‘걸림관계(incidence)’ 이론, 그리고 영미권의 Corbett et al.(1993)이 참조되면 더 발전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4 기욤은 형용사를 명사의 어휘적 의미와 관련된 내포와 외연에 영향을 주는 수의적 성분, 즉 ‘질료적 한정사’로 보고, 관사를 결과명사 외연의 적용영역, 즉 외연범위(extensité)를 한정하는 ‘형식적 한정사’로 보았다.

현된 ‘avion’은 눈에 보이는 형태가 같더라도 존재 차원이 다른 것이다.

본고에서 새롭게 제시하고자 하는 나무그림은 다음 (2)인데, 이 그림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어휘(=의미) 중심에서 문법(=형태) 중심으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화살표로 걸림관계/투사(incidence)의 방향을 표시했다는 것이고, 명사의 랑그에서 담화로의 이행(=실현) 과정이 최소 두 차원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프라임의 개수로 표시했다는 점이다. 프라임의 수는 명사의 질적 변화를 말한다. 따라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나 관계절은 그 수나 양에 관계없이 명사(N)의 자격(=형상)을 바꾸지 못하므로 질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이러한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예를 통해 간단히 보이고자 한다. 먼저 다음 (3)의 프랑스어의 예들은 다음 (4)와 같은 구조로 분석된다.

- (3) 가. Il y a un grand parc à New York.
 (뉴욕에 큰 공원이 있다)
 나. Je vais aller au Japon en avion.
 (나는 일본에 비행기 타고 갈 것이다)
 다. Paul, il est mon ami.
 (폴, 그는 내 친구이다)
- (4) 가. Il y a [₀₁ un grand parc] [à ₀₂ New York].
 나. Je vais aller [au Japon] [en ₀₂ avion].
 다. [₀₁ ₀₂ Paul], il est [₀₁ mon ami].

다음으로 한국어의 예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구체적으로 다음 (5)와 같은 자료가 주어졌다고 해 보자. 외래 이론이나 선입견에 의존하지 않고 분포만으로 분석한다면 다음 (6)과 같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⁵

⁵ 블룸필드(Bloomfield)를 비롯하여 호켓(Hockett), 해리스(Harris) 등 미국의 기술주

- (5) 가. 너 학교 안 다닐 거니?
 나. 오랜만에 학교에 가 봤더니 많이 변했더라구.
 다. 네 형편에 학교엘 어떻게 다녀?
 라. 철수는 학교를 같이 가자고 매일 우리 집에 들렀다.
 마. 학교가 뭐 간다고 가지냐?
 바. 그렇게 공부하려면, 학교에는 뭐 하러 다니냐 이놈의 자식아!
 사. 우리 아들 이제 학교도 가고, 수영장도 다니고 좋겠네!
 아. 저 치가 우리학교 영어선생이여.
 자. 우리 학교의 전통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오.
 차. 우리 학교와의 교류는 언제 추진할 겁니까?

이를 조사들의 통합관계와 계열관계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심층 구조를 설정할 수 있다. 앞서 프랑스어에 적용한 바를 그대로 따라 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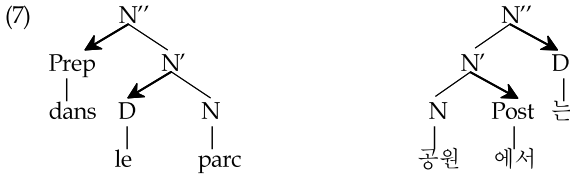
- (6) 학교- θ_1 - θ_2 다니다. 학교- θ_1 -가 가지다.
 학교-에- κ 다니다. 학교-에- θ_2 가다.
 학교- θ_1 -는 다니다. 학교- θ_1 -를 가다.
 학교- θ_1 -도 가다. 학교- θ_1 - θ_2 영어선생.
 학교- θ_1 -의 전통. 학교-와-의 교류.

이를 응용하면, 한국어의 명사가 통사적 기능에 따라 주어, 목적어, 처소어 등으로 실현될 수 있고 그 실현방식은 일정하게 격조사(=후치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조사의 분포를 통해서 일관되게 제시할 수 있다.⁶

의 문법을 원용하여 조사 체계를 분류하는 여러 논의들에서조차도 조사의 분포 관계를 잘못 파악하거나 이론적인 입장에서 선입견에 이끌려 분포의 제약을 잘못 기술한 예들이 많이 나타난다(김영희 1974 참조). 허웅(1983)에서뿐만 아니라 국어학 전통의 문법서에서도 보조사의 범주에 ‘는, 도, 만’을 같은 계열로 처리하고 있고, 격조사에 ‘가, 를, 의’를 포함시키면서, 소위 다른 부사격조사들과의 분포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분포와 기능, 형태와 의미의 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6 우리의 체계를 보면, 전통적으로 국어학에서 격조사 계열로 포착해 왔던 조사 ‘이/가, 을/를, 의’가 조사 ‘도, 은/는’과 더불어 동일 부류를 이루게 되고 이 부류는 후치관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문법관계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소위 격조사들은 일반언어학적 관점에서나 유형론적 관점에서나 ‘후치사(postposition)’란 용어로 지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야 ‘전치사’와 대등하게 부치사(adposition) 범주 안에서 논의가 가능해진다(Kurzon and Adler 2008, Hagège 2010).

이런 방식으로 한국어의 명사구 확장 구조를 프랑스어의 명사구 확장 구조와 나란히 제시하면, 그 대칭성이 눈에 잘 보인다.⁷



한국어의 조사 체계를 일단 분포 관계를 통해 보면, 적게는 두 계열, 많게는 최대 네 계열의 자리(slot)를 정할 수 있다.⁸ 이러한 계열이 각각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분포 관계를 통해 정해진다. 가령, 조사 ‘가’는 격조사 계열로, 조사 ‘는’은 ‘보조사’ 계열로 분류되는 국어학의 전통에서는 일차적으로 분포론적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런 바탕에서 조사 ‘가’와 ‘는’의 의미론적 대립 관계를 파악하는 논의는 기본적으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비교의 층위가 어긋나 있기 때문이다.

3. 한국어의 유형론과 기본 통사 단위

여기서는 국어학계에서 일반언어학 이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몇 가지 왜곡 현상을 지적함으로써, 한국어 통사 구조 기술의 비틀림 현상의 근원을 밝히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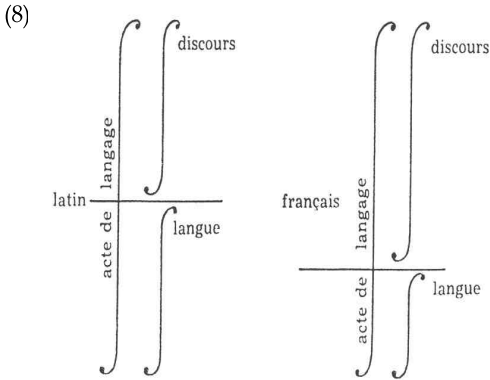
전통적으로 유형론에서 이루어진 굴절어, 고립어, 교착어, 포함어 등의 분류법은 어느 하나의 자연언어의 성격을 온전히 보여주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

7 이 그림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D(éterminant) 범주(=한정조사=후치관사)를 기준 한국어 문법의 관형사 또는 한정사라고 불리는 ‘이, 그, 저’나 ‘한, 하나의’ 등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목정수(1998)을 참조할 것.

8 목정수(2003)에서는 한국어 조사 체계의 상세도를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제시한 바 있다.

명사	격어미	후치사	질화사	한정조사	종조사
학교	에	서	만	은	요
국어학	($\emptyset$)	($\emptyset$)	만	이	($\emptyset$)
북경	으로	부터	($\emptyset$)	의	($\emptyset$)

제기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언어유형론을 제시한 학자가 바로 기욤이다. 기욤은 전통 언어유형론의 분류를 랑그에서 디스курс로의 연속체에서 기본적인 단위인 단어의 포착이 이루어지는 지점인 어근 포착(saisie radicale), 어휘 포착(saisie lexicale)과 문장 포착(saisie phrastique)의 상대적 위치에 의해서 언어의 유형을 분류한다.⁹ 이러한 시각에서 기욤은 라틴어와 프랑스어의 유형론적 차이를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Guillaume 1971: 21).



(latin=라틴어, français=프랑스어, langue=언어, acte de langage=언어행위, discours=담화)

굴절어로 분류되는 인구어들의 역사적 변모를 살펴보면,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던 굴절어미가 어순이나 전치사에 그 역할을 넘겨주는 현상을 보게 된다(Hewson & Bubenik 2006). 라틴어에서는 어근 또는 어간과 격어미가 융합된 형태가 랑그의 기본 단위이다. 따라서 격어미는 통사론의 최소 단위로 따로 떼어낼 수가 없다. 반면에 프랑스어의 전치사는 하나의 독립적인 통사 단위가 된다.¹⁰ 한국어의 조사는 어떠한가? 프랑스어의 전치사에 비추어 보면, 한국어의 조사는 독립적인 통사 단위가 되어야 한다.

허웅(1983: 184-188)에서는 ‘그 꽃이 매우 아름답다’란 예를 가지고 [그 꽃이]의 구조를 ‘그’와 ‘꽃이’의 결합으로 기술하고 이들의 결합을 ‘통어적 짜임

⁹ 이러한 전통 유형론에 대한 기욤의 입장을 언어생성 영역 이론(théorie des aires glossogéniques)이라 한다.

¹⁰ 기욤의 강의록을 참조했다(Guillaume 1974: 45-50).

새'라¹¹ 하고 '꽃이'를 '형태적 짜임새'라¹² 하고 있다.

한국어의 조사는 굴절소리기보다는 교착소의 성격이 강하다. 조사 하나가 단독적으로 그의 숙주(host)인 체언 요소에 붙을 때, 그 체언과 분리되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기능도 하나의 형태에 하나의 기능이 대응하는 대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체언'과 '조사'의 결합을 '결합과정'으로, 성분과 성분의 결합을 '통합과정'으로 양분해서 따로 부르고 있는 권재일(2012)의 체계를 유지한다고 해도, '명사+조사'를 원리적으로 굴절어에서 말하는 '곡용형'의 단어형, 즉 형태적 구성으로 볼 수는 없다. 심성어휘론(mental lexicon)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체언과 조사는 따로따로 어휘부에 독립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단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수식의 통사적 관계를 따져볼 때도 한국어의 '체언+조사'를 굴절형으로 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예를 들어, '예쁜 꽃이'에서 관형어 '예쁜'이 수식하는 것은 '꽃'이지 '꽃이' 전체가 아니다. 그러나 허웅(1983)에서는 자립형식에 의지해 단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꽃이'를 최소 자립 형식의 단어로 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수식어 '예쁜'이 '꽃이'라는 말마디를 꾸며주는 것으로 파악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조사는 그 기능에 따라 문법관계를 표시하는 격조사, 의미기능을 한정하는 보조사(delimiter) 등으로 하위분류할 수는 있으나, 그와 관계없이 선행 단위인 체언 요소와는 별개의 요소로 분석되어야 한다. 형태음운론적으로 앞말과 운율적인 단위로서 말토막이나 억양구를 이루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통사적 단위와는 별개의 차원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인구어에서 종합적 성격을 완전히 잃고 분석적 성격으로 변한 프랑스어나 영어와의 비교를 통해 보면 한국어의 조사는 그 분포에 입각하여, 후치사류와 한정사류로 대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목정수 1998, 2003, 2009b 참조).

11 “어떤 자립형식을 직접성분으로 쪼개어서 얻어지는 언어형식이 다 자립형식일 때에, 그 큰 언어형식을 ‘통어적 짜임새’라 하고, 통어적 짜임새의 됴됨이, 그 짜여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연구하는 부문을 ‘통어론’이라 한다.”(허웅 1983: 186).

12 “‘꽃-이’와 ‘아름답-다’는 두 형태소로 된 하나의 말마디인데, 이러한 한 말마디의 짜임새(자+구, 구+구)를 ‘형태적 짜임새’라 하고, 그 짜임새와, 그 때에 나타나는 ‘-이’, ‘-다’와 같은 구속 형식의 뜻을 연구하는 부문을 ‘형태론’이다.”(허웅 1983: 186).

4. 한국어 서술절 설정의 문제들

4.1. 서술절이란 개념과 그에 대한 비판

Li(1976)의 연구 이래로, 한국어는 주어·주제 부각형 언어로 규정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웅(1983)이나 허웅(1999) 등처럼 한국어 전통 통사론에 서는 문장 구조를 논할 때 소위 주제어(topic) 없이 주어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른바 ‘이중 주어 구문’에서 주어가 하나 이상이라는 한국어의 특수성이 언급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주어진 예문은 거의 다 조사 ‘이/가’가 출현한 문장이고, 조사 ‘은/는’이 나타난 문장은 예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예문 때문에 나오는 주어 개념에 문제가 있음을 밝혀, 한국어의 특수성으로서 제시된 ‘이중 주어 구문’을 해결하기 위해 국어학자들이 고안해 낸 이른바 ‘서술절’ 개념이 잘못된 이론적 토대에서 비롯된 잘못된 파생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어에서 주제어와 주어의 개념이 불분명하게 혼동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많은 경우에 주제어라고 한 것을 주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소위 ‘이중 주어 구문’에 대해서는 대주어, 소주어의 개념을 사용하여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있다.

- (9) 가. 나는 호랑이가 너무 무서워요.
 나. 우리 할아버지는 돈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다. 코끼리가 코가 긴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¹³

이렇게 해서 서술절을 인정하는 입장이 자연스럽게 학교문법에 수용되었고, 더 나아가 이러한 점이 한국어의 특수성으로 널리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최근, 최현배(1961)이나 허웅(1983)의 ‘폴리마디’ 개념, 즉 서술절의 개념을 가장 앞서서 계승하고 있는 권재일(2012)에서도 그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13 전통적인 국어학계의 통사론 논의에서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문장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형태의 문장을 논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 (i) 가. 내가 호랑이가 무섭다.
 나. 할아버지가 돈이 많으시다.
 다. 코끼리가 코가 길다.

있다. 더 나아가, 권재일(2012: 219)에서는 내포문의 체계를 세우면서 ‘서술절 내포문’을 따로 ‘상위문 서술어’ 없이, 서술절 내포문이 상위문 서술어가 되는 특이한 구조를 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도 이른바 ‘서술절’을 내포문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뒤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본고에서는 소위 ‘서술절’은 내포문의 한 하위유형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이른바 ‘서술절’은 ‘절’이 아니라 ‘구’이기 때문이다.

한편, 임동훈(1997)에서 수정하긴 했지만, 임동훈(1996)에서 ‘코끼리가 코가 길다’의 심층구조로 ‘[코끼리가 [코가 길-다]-다]’라는 구조를 설정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서술절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었다(목정수 2005 참조).

본절에서는 본고의 중심 테마인 ‘서술절’에 대해 본격적인 비판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서 먼저 주어에 대한 개념부터 새롭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기본 시각은 문장을 구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절차는 어떤 유형의 언어이든지 간에 무엇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서술하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 언어활동의 기본이라는 것이다(Hirtle 2007, 2009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서술절’에 대한 비판을 시작해 보겠다. 문장을 주어에 대한 서술의 구조로 보면, 소위 ‘서술절’을 형성하는 것들이 과연 ‘주어’에 대한 ‘서술어’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향이 보고 싶다’와 같은 문장을 ‘무엇에 대해 어떠한 서술이 더해졌는가’의 관점에서 보면, ‘고향’에 대해서 그 서술 내용이 ‘보고 싶다’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고향이 보고 싶다’ 전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즉 보이지 않는 무엇에 대한 서술처럼 느껴진다. 그것은 바로 화자 자신에 대한 진술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표시하면 화자 ‘나’에 대해서 ‘고향이 보고 싶다’라는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장의 주어는 ‘나’가 되고 그것을 상정해야 전체 문장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비가 온다’도 마찬가지이다. 이 문장은 ‘비’라는 것에 대해서 ‘온다’라는 서술이 행해지는 문장으로 보기보다는 기후나 날씨의 일반적인 상황이 화자의 머리에 먼저 떠오르고 그에 대한 서술로서 ‘비가 온다’를 발화하는 것으로 보는 게 옳을 것이다. ‘비가 온다’가 ‘비오다’라는 하나의 동사(구)처럼 어휘부에

등재될 수 있는 것도 이 구성이 절이 아니라 구 구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구어의 소위 비인칭 주어 구문과 비교해 볼 수 있다.

- (10) 가. It is raining. (영어)
 나. Il pleut. (프랑스어)
 다. Plouă. (루마니아어)
 마. Piove. (이탈리아어)
 바. 下雨. (중국어)¹⁴

‘비(가) 오다’를 주어 ‘비’에 대한 서술어 ‘오다’의 결합으로 완성된 절이 아니라, 하나의 서술어구로 본다면, 온전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어가 요구된다. 이때 주어는 비인칭 주어로 루마니아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처럼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영어나 프랑스어의 경우는 허형식 ‘it’이나 ‘il’로 채운다. 이때의 ‘it’은 지시성이 없는 요소이다. 이렇게 보면 다음과 같은 구문도 비인칭 구문으로 처리할 수 있다.

- (11) 가. 벌써 겨울이다.
 나. 지금 몇 시니?
 다. 불이다 불이야!

이처럼, 한국어 문법에서 무엇을 주어로 볼 것인가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소위 주체존대 선어말어미 ‘-시-’에 대한 논의도 결국 문장의 주어를 무엇으로 보느냐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목정수 2013b). 주체존대 선어말어미 ‘-시-’와 관련하여 국어학계에 널리 퍼져있는 개념이 ‘직접 존대’와 ‘간접 존대’의 개념이다. 이는 ‘높임법’의 체계 설정 시,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으로 나누고, 다시 ‘주체 높임법’을 하위분류할 때 나온 개념으로서, 고영근·구본관(2008) 등을 위시한 학교문법에서 그대로 수용되고 있다. 최근 권재일(2012)에서도 더 고착화된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직접 존대’와 ‘간접 존대’의 개념은 ‘주어’ 개념에 대한 이론적 차이에서 나온 파생 개념으로, 본질적으로 ‘-시-’ 자체에 ‘직접 존대’의 기능과 ‘간접 존대’의 기능이 이중

14 중국어의 ‘下雨’에서 논항명사 ‘雨’가 동사 ‘下’ 뒤에 나타나는 점이 매우 시사적이다. ‘雨’를 주어 자리에 놓고, 자동사 ‘下’를 서술어 자리에 놓은 구성 ‘雨下了.’는 비문법적이다.

적으로 나뉘어 중첩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의 시각은 간단하다. ‘서술절’ 개념의 부당성을 밝히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의 기능을 단일하게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술절 설정에 대한 비판은 남기심(1986), 임흥빈(1974), 목정수(2005) 등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목정수(2005)에 의하면, 서술절은 서술구로 재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목정수(2005)가 제시한 논거의 핵심은 진짜 ‘주어+서술어’라는 문장은 하나의 사태를 나타내는 단위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아이들이 밥을 먹는다’의 구조에서 ‘밥을 먹다’는 하나의 단위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아이들이 먹다’가 하나의 단위가 되어 사전에 등재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목정수(2005)에서는 실제 사전을 검토하여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였다. 사전에 실려 있는 형식상 주술 형식의 관용구나 숙어, 연어 등을 대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이들은 그 자체로 문장을 성립시킬 수 없고, 주어 자리에 또 하나의 논항을 요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4.2. 서술절 성립 진단법 1: 대용언

이상 목정수(2005)나 목정수(2013b)에서 제시된 논거에 더하여 여기서는 ‘대용언’을 가지고 서술절의 성립 가능성을 진단해 보기로 한다. 대용언 ‘그리하다/그러다’와 ‘그리하다/그렇다’를 통해 보면, 이들 대용언은 ‘주어+서술어’ 전체를 대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12) 철수는 학교에서 공부했다.

⇒ 도서관에서도 그랬다.

영수도 그랬다.

(12)의 대용표현에서 ‘도서관에서도 그랬다’는 ‘공부했다’만을 대용할 수 있다. 반면에 ‘철수는 공부했다’나 ‘민수도 공부했다’를 대용할 수는 없다. 즉, 자동사와 타동사의 경우, 대용언이 동사나 그와 관련된 내부 논항으로서의 성분과의 결합체를 그 선행사로 되받을 수 있지, 외부 논항인 주어를 포함한 절 전체를 되받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용언의 일반적 제약이다.

그렇다면, 소위 서술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다음 예문을 통해

서 살펴보자.

(13) 코끼리는 코가 길지요.

위 문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반문이 가능할 것이다.

(14) 가. 코끼리가 정말 그래요?

나. 정말 코가 그래요?

여기서 (14가)의 ‘그래요’는 ‘코가 길다’를 대용한다. 그러면 (14나)의 ‘그래요’는 ‘코끼리가 길다’를 대용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 경우에 ‘그래요’는 ‘코끼리가’라는 성분이 생략된 것을 전제로 해서 ‘길다’라는 서술어만을 대용할 수 있다.

(15) 가. 코끼리가 정말 그래요(=코가 길어요)?

나. (코끼리가) 정말 코가 그래요(=길어요)?

다음 (16)의 심리술어 구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7)과 같은 반문이 가능하다.

(16) 나는 호랑이가 무서워요.

(17) 가. 너도 그래?

나. 뱀도 그래?

(17가)와 (17나)에서도 똑같은 통사적 사건이 벌어진다. ‘그래’는 ‘호랑이가 무섭다’나 ‘무섭다’만을 대용할 수 있다.

(18) 가. 너도 그래(=호랑이가 무서워)?

나. (너는) 뱀도 그래(=무서워)?

이렇게 소위 이중 주어 구문에서 서술어는 일반적인 타동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사적 행태를 보인다. 따라서 ‘그러하다/그렇다’가 ‘코가 길다’를 대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주어+서술어]의 절 구성이 아니라 [비주어+서술어]의 구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 우리는 다음 예문들에서 대용언의 대체 가능성에 차이

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지 살펴보자. 예상대로 (19)는 대용언으로 대체했을 때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고, (20, 21)은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그 이유는 (19)의 [그녀가 돌아오다]는 절을 구성하고 (20)의 [비가 오다]와 (21)의 [책이 많다]는 절이 아닌 구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표면형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속구조는 다른 것이다.

(19) 오월에 그녀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모두 기뻐 눈물을 흘렸다.

⇒ *그들도 삼월에 그랬을 때, 모두 기뻐 눈물을 흘렸다 한다.

(20) 여름에 비가 왔을 때, 나는 고생을 많이 했다.

⇒ 그들도 겨울에 그랬을 때, 고생을 많이들 했다고 한다.

(21) 책이 많으면, 나는 기분이 좋아진다.

⇒ 그들도 그러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한다.

따라서 이른바 이중 주어 구문에서의 [NP가 V] 구성은 통사적 결합체로서 서술구(=동사구)를 이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NP가 V] 구성이 서술구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목적어가 주제화된 다음과 같은 문장은 제외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제화된 목적어를 뺀 [NP가 V] 구성은 주술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22) 가. 철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공부를 포기하고

돈을 벌러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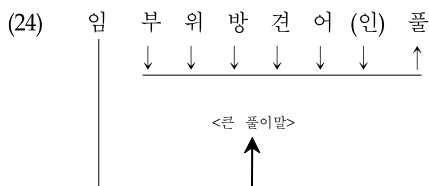
나.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만드셨다.

이 문장들에서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다’와 ‘세종대왕께서 만드시다’를 대신할 수 없는 이유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이 서술구가 아니라 절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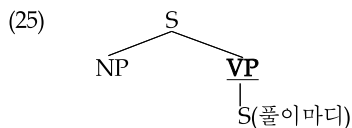
(23) 가. *영수도 그러서서 공부를 포기했다.

나. *츄우기도 그러셨다.

허웅(1983: 248)에서는 통사론을 말마디(=성분)가 모여 월(=문장)이 짜여지는 방법에 대한 연구로 규정하면서 성분과 문장의 관계를 대체로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다. 생성문법의 외부 논향으로서의 주어와 내부 논향으로서의 목적어의 구분이 여기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웅(1983)에서는 서술절-허웅 선생의 용어로는 풀이마디-을 인정하고 있다.¹⁵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서술절(=풀이마디) S가 안겨 있는 상위 교점이 VP로 되어 있는 다음 그림이다.



허웅(1983)에서 풀이마디를 VP라고 그리면서도 결국 서술절이라 해서 절의 지위를 준 것은 이를 [주어+서술어]로 보고 있기 때문이고, 다시 주어로 본 것은 주격조사 ‘이/가’를 주어 표지로 본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술절을 인정하든 이를 서술어구로 보든 분명한 것은 이러한 서술절/서술어구가 [토픽-코멘트] 구조에서 코멘트 부분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술절 속의 NP는 진정한 주어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주체존대 요소 ‘-시-’와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목정수 2013b). 앞서 대용언을 통한 진단으로도 이러한 사실은 밝혀진 바 있다.

이상에서 보면, 한국어의 문장에서 소위 주격조사가 중출된다 하더라도, 문장의 주어를 문장의 시발점이 된 기수 인칭(cardinal person)-기수 인칭은 말하는 자로서의 1인칭, 말을 받는 자로서의 2인칭, 말의 대상이 되는 사람 또는 사물로서의 3인칭으로 구분되는 서수 인칭(ordinal person)에 공통된 말의 대상으로서의 인칭을 말함(Hirtle 2007: 145-166)-으로 보게 되면, 나머지 성분들은 그와 관련된 다른 기능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문장에 주어

¹⁵ 허웅(1981: 307)에서는 서술절 설정에 대한 반론을 소개하면서도 서술절을 지키고 있다. 그의 논지를 그대로 인용해 본다. “그러나 필자로 볼 때는, 이렇게까지 해서 굳이 풀이마디를 없애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필자로서는, <그 중소리는 듣기가 좋다.> <그 중소리를 듣기를 좋아한다.>의 두 말의 뜻이 같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는 마음의 상태이오, 하나는 마음의 움직임이니, 뜻이 같을 수 없지 않은가?”

하나인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한국어의 소위 이중 주어 구문에서 주어는 하나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이 이중 주어 구문이라는 현상도 결국 한국어의 특수성이 아니라 보편성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다음 (26)의 문장들은 (27)의 문장 구조로 파악된다.

(26) 가. 호랑이가 무서우시대요.

나. 나란 놈은 떡을 좋아한다.

다. 내 말이 이해가 되지가 않니?

(27) 가. (할아버지는_{주어}) 호랑이가_{보어/목적어} 무서우시대요._{주어인칭/화청자인칭}

나. 나란 놈은_{주어} 떡을_{목적어} 좋아한다._{주어인칭/화청자인칭}

다. (너는_{주어}) 내 말이_{보어/목적어} 이해가 되지가 않니?_{주어인칭/화청자인칭}

4.3. 서술절 성립 진단법 2: 동일 주어 제약

목정수(2013a)에서는 복합문에서의 동일 주어 제약의 연결어미를 통하여, 그리고 ‘-시-’와 호응하는 성분의 구별을 통해 소위 이중 주어 구문의 진성 주어 문제를 따져 본 적이 있다. 이를 간략히 재구성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소위 서술절의 ‘가형 성분’이 진정한 주어가 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법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복문 구조에서 연결어미의 성격에 따라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 인칭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다. 대조적 연결어미의 하나인 ‘-고도’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해야 한다는 ‘주어 동일성 제약’을 어기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다음 (28가)는 선행절 [결혼하다]와 후행절 [일을 계속하고 싶다]의 주어가 동일한 ‘그 여자’이기 때문에 문법적이지만, (28나)는 선행절 [결혼하다]의 주어는 ‘나’이고 후행절 [일을 계속하고 싶다]의 주어는 ‘그 여자’로 동일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28) 가. 그 여자는 결혼하고도 일을 계속하고 싶대요.

나. *나는 결혼하고도 그 여자는 일을 계속하고 싶대요.

이를 통해 소위 이중 주어 구문의 진성 주어를 판별해 보자. 다음 문장에서 후행절의 주어는 무엇일까? ‘잠’이 서술어 ‘오다’의 주어가 될 수 있는지를 따

제보자는 것이다.

(29) 가. 소주 한 병을 마시고도 잠이 안 왔어요.

나. 소주를 한 병이나 드시고도 잠이 안 오세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 (29) 문장의 후행절의 주어는 ‘잠이’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잠이’가 주어라면 선행절 [소주를 마시다]의 주어도 ‘잠’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행절 [소주를 마시다]의 주어는 (29가)에서는 화자인 ‘나’로, (29나)에서는 ‘할아버지’로 복원된다. 그렇다면, 선행절의 주어인 ‘나’/‘할아버지’와 후행절의 주어처럼 보이는 ‘잠’이 동일 주어 제약을 어기는 복문이 되므로 이 문장은 비문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위 문장은 완전히 문법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선행절의 주어로 복원된 ‘나’/‘할아버지’가 후행절의 동일 주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주를 마시고 잠이 안 오는’ 사람은 ‘나’/‘할아버지’이어야 하는 것이다.

(30) 가. (나는) 소주 한 병을 마시고도 (∅) 잠이 안 왔어요.

나. (∅) 소주 한 병을 마시고도 (나는) 잠이 안 왔어요.

다. *그는, 소주 한 병을 마시고도 나는, 잠이 안 왔어요.

(31) 가. (할아버지는) 포도주를 두 잔 드시고도 (∅) 잠이 안 오세요?

나. (∅) 포도주를 두 잔 드시고도 (할아버지는) 잠이 안 오세요?

다. *할아버지는, 포도주를 두 잔 드시고도 (∅) 잠이 안 오세요?

4.4. 서술절 성립 진단법 3: 선어말어미 ‘-시-’와 주어 존대

이른바 이중 주어 구문의 진성 주어를 찾는 문제는 문법요소인 선어말어미 ‘-시-’의 쓰임새에 대한 설명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지금까지 국어학계에서는 ‘-시-’를 높임 요소로 보는 시각에서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예를 들어, 타동사 구문에서 주체를 높이는 것은 ‘직접 존대’의 기능으로, 이중 주어 구문에서 주체를 높이는 것은 ‘간접 존대’의 기능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허웅 1983, 고영근·구본관 2008, 권재일 2012). 그러나 본고의 판단은 ‘-시-’의 기능이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가 높이는 대상, 즉 ‘-시-’가 가리키는 존대 대상은 아주 일관된 자리에 놓인다는 것이다. ‘-시-’

는 주어 자리에 높임의 대상이 왔을 때 일치/호응한다는 것이다(목정수 2013b). 이렇게 보면, 선어말어미 ‘-시-’의 기능은 일관되게 설명된다. 다음 문장에서 ‘-시-’는 모두 주어인 ‘할아버지’와 관계있는 것이다.

- (32) 가. 할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집에 오신다.
 나. 할아버지는 나를 나무라셨다.
 다. 할아버지는 낚시가 그리 좋으신가 보다.
 라. 할아버지는 음악에 관심이 많으시다.

심지어 최근 들어, 과용 또는 오용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이쪽으로 앉으실 게요’나 ‘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올해도 복된 한 해 되시길 바랄 게요’ 등에서의 ‘-시-’의 사용도 일관되게 ‘주어 존대 요소’로서의 ‘-시-’의 용법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목정수 2013b). 이러한 시각은 주체 존대요소로서의 ‘-시1’과 별도로 상황주체 존대나 청자 존대 요소로서의 ‘-시2’를 따로 설정하려는 일단의 국어학자들의 시각과 주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이정복 2010, 임동훈 2011). 본고는 ‘코끼리는 코가 길다’, ‘나는 할아버지가 싫다’에서 ‘코끼리’와 ‘나’를 진성 주어로 보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타동사 구문이든 자동사 구문이든, 소위 이중 주어 구문이든 ‘-시-’는 그 문장의 주어와 호응하여 그 주어 자리에 놓이는 대상을 존대하는 요소로 본다. 이것이 한국어 일반 화자들의 직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언중들이 (국어학자들이 보기에) 과용이나 남용처럼 보이는 예를 계속 생산해 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필자는 선어말어미 ‘-시-’의 기능은 변화하지 않았고, 앞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언어 환경, 담화 상황이 계속해서 새로 생기고 늘고 있기 때문에 ‘-시-’의 출현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쇼호스트로서나 종업원으로서 고객을 대하는 언어 환경에서는 화자는 말하는 주체로서 1인칭이지만 결코 화자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고 청자, 그것도 높임의 대상이 되는 청자, 즉 2인칭의 입장에서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자본주의화, 상업화 등과 맞물려 늘어나게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어말어미 ‘-시-’가 확대되어 쓰이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

4.5. 서술절 성립 진단법 4: 결합가 이론

마지막으로 허웅(1983)을 위시해서 학교문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서술절 설정의 타당성 문제를 논항구조나 결합가(valency) 이론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은 서술절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서술절 설정의 부당성을 이론적인 입장에서부터 입증해 보자. 결합가란 개념은 문장의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빈자리(Leerstelle, empty place)를 말한다(고영근 2013).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동사이든 형용사이든 서술어 또는 하나의 서술어에 상응하는 서술어구가 결합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논항구조나 결합가를 설정하는 언어에서 목격되는 범언어적 현상이다.¹⁶ 논항구조를 보여주는 결합가 사전을 참조하면, 대부분 다 서술어와 서술어가 요구하는 논항이 다 채워진 것이 기본적인 단문을 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가 경험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루마니아어 등에서는 모두 그렇다. 따라서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 같은 성분은 논항으로서 서술어에 의해 요구된 것이다. 다음은 모두 하나의 단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33) 가. 철수가 영화를 사랑한대요.

나. 아이가 타고 있어요.

다. 저는 목정수라고 합니다.

라. 코끼리는 코가 길다.

마. 철수는 키가 무척 크다.

바. 가을 하늘은 높다.

전체 문장, 즉 절은 결합가 실현의 결과이지, 다시 다른 논항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문장의 핵을 동사로 보고 주어가 실현된 단계에서의 핵을 동사가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사의 논항 요구는 이미 실현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시 이 ‘주어+동사’가 중심이 되어 또 다른 논항을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소위 이중 주어 구문에서 대주어, 소주어 운운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논의를 따르는 것과 진배없다. ‘코끼리는 코가

16 경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필자의 지식 범위 내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서술절이란 개념을 인정했을 때 이러한 서술절이 또 다른 논항을 요구하는 현상이 있는 언어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본고의 관점은 유효하다.

길다'에서 소주어 '코가'와 서술어 '길다'의 결합인 '코가 길다'가 서술절이 되고, 이 서술절이 대주어 '코끼리는'을 요구한다고 하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직관적으로 '코끼리는', '코가', '길다'가 위계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에서는 서술절의 논리와 공유하는 점도 있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의 통사 성분의 위계 구조는 [코끼리는 [코가 길다]]의 구조이지 [[코끼리는 코가] 길다]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계 구조는 '코끼리는 과자를 (코로 받아) 먹는다'의 위계 구조가 [코끼리는 [과자를 먹는다]]와 같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서술절' 개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의 구조가 논항구조에 맞게 가능하려면 서술어 '길다'가 일차적으로 요구한 논항과의 결합, 즉 [코가 길다]가 제3의 서술어처럼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결합이 합성동사나 서술어구나 하나의 서술어로서 기능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그것이 핵이 되어 다른 논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결합가 이론의 핵심이 아니던가. 따라서 '코끼리는 코가 길다'에서 서술어 '길다'가 '코가'를 주어 논항으로 요구하고 '코가 길다'가 또다시 주제 논항으로 '코끼리는'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코가 길다'를 문장 단위로 보는 한, 모순에 빠지게 된다.¹⁷ 절(=문장)은 다른 논항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단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점은 '코가 길다'의 결합을 문장 차원이 아니라 구 차원에서 파악할 때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길다'가 요구한 '코가'와의 결합은 VP 구성으로 파악되고 이 VP의 핵은 여전히 '길다'가 유지하고 있지만, '코가'와의 결합체인 '코가 길다'가 하나의 단위로 개념화되거나 하나의 서술어로 될 가능성을 유지한 채, '코가 긴' 대상을 주어 논항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길다'라는 서술어는 한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고, 두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논항구조에 따라 의미도 달라짐을 알 수 있다.

17 이 때문에 '코끼리는 코가 길다'에서 서술어 '길다'를 한 자리 술어로 본다면, 이 문장은 '코끼리의 코가 길다'라는 심층구조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길다'의 논항은 '코끼리의 코가'로 하나만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 자리 술어의 논항이 실현된 '코가 길다'가 절이라면 이미 논항 실현이 끝난 단문 차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절이 다시 새로운 논항을 요구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34) 가. 한강이 한국에서 제일 길다. (한 자리 서술어 = be long)

나. 코끼리는 코가 길다. (두 자리 서술어 = have ... long)

동사 ‘있다’도 논항구조에 따라 의미 해석도 달라지고, 그 구문에 따라 존대형도 달라지는 것을 또 다른 증거로 내세울 수 있다. 존재동사 ‘있다’의 논항구조는 [(NP2-에) NP1-이 있다]이고 소유동사 ‘있다’의 논항구조는 [NP1-은 NP2-가 있다]이다.

(35) 가.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이다.

나. 나한테는 이모가 두 분 계시다.

(존재동사 ‘있다’ -> 존대형 ‘계시다’)

(36) 가. 나는 꿈이 있다.

나. 할아버지는 책이 많이 있으시다.

(소유동사 ‘있다’ -> 존대형 ‘있으시다’)

영어의 ‘have’ 동사도 논항 구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37) 가. I have a book. (두 자리 서술어)

나. He had the kindness to tell me the way.

(38) 가. I'll have him a good teacher in future. (세 자리 서술어)

나. I want you to have this room clean and tidy.

다. When did you last have your hair cut?

라. I can't have you playing outside with a bad cold!

또한, 범언어적으로 보아도, 해당 서술어가 논항의 자리에 절 형식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지만, (서술)절이 새로운 논항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가령, ‘think’ 등의 사유동사나 인지동사가 목적보어로 ‘that 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어느 절이 그 절 밖의 새로운 요소를 논항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절의 개념을 수정하지 않는 한, 성립할 수 없다.

(39) 가. I don't think that it is true.

나. I guess (that) I can get there in time.

다. Let us suppose that the news is really true.

(40) 가.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해?

나. 나는 철수가 머리가 크다고 봐.

다. 철수를 범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5. 맺음말

이 글에서 우리는 한국어의 조사와 어미 자체가 통사 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한국어의 유형론적 위상 점검을 통해 주장했다. 그리고 조사의 분포를 통해 각각의 조사에 대한 문법적 지위를 새로 정립하는 과정에서 소위 주격조사라는 형태와 주어라는 통사 기능이 별개의 다른 층위의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착종되어 혼동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로 말미암아 빚어진 사건들 가운데 하나인 ‘서술절’이란 개념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서술절’이란 개념이 이론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개념적 오류를 드러내기 위해, ‘대용언 대치’를 통한 진단법, ‘동일 주어 제약’을 통한 진단법, 그리고 ‘결합가 이론’에 따른 진단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소위 서술절의 소주어는 진짜 주어가 아니라 전형적인 타동사 구문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통사적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한국어 문법에서 ‘서술절’ 자체 또는 ‘서술절’이란 이름으로 설명해 온 현상, 즉 이중/다중 주어의 개념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성립하기 어려운 개념임이 입증된 셈이다.

[주제어: 서술구, 서술절, 주격조사, 주어, 한정조사]

참고문헌

- 고영근·구본관. 2008. 『우리말 문법론』. 서울: 집문당.
 고영근. 2013. 민족어 의존·결합가 문법과 그 유형론적 접근: 언어 유형론 노트 (4). 2013 형태론 가을 집담회 자료.
 권재일. 2012. 『한국어 문법론』. 서울: 태학사.
 김영희. 1974. 한국어 조사류어의 연구: 분포와 기능을 중심으로. 『문법연구』 1, 271-311.
 남기심. 1986. 서술절의 설정은 타당한가. 유목상 (편). 『국어학 신연구 I』, 191-198. 서울: 탑출판사.
 목정수. 1998. 한국어 격조사와 특수조사의 지위와 그 의미: 유형론적 접근. 『언어학』 23, 47-78.
 목정수. 2003. 『한국어 문법론』. 서울:월인.
 목정수. 2005. 국어 이중주어 구문의 새로운 해석. 『언어학』 41, 75-99.
 목정수. 2007. ‘이다’를 기능동사로 분석해야 하는 이유 몇 가지. 『어문연구』 136, 7-27.

- 목정수. 2009a. 한국어학에서의 소쉬르 수용의 문제: 기욤을 매개로. 『언어학』 53, 27-53.
- 목정수. 2009b. 『한국어, 문법 그리고 사유』. 서울: 태학사.
- 목정수. 2013a. 한국어의 핵심을 꿰뚫어 본 교육 문법서: Yeon & Brown (2011), Korean: A Comprehensive Grammar를 중심으로. 『형태론』 16, 55-81.
- 목정수. 2013b. 선어말어미 ‘-시-’의 기능과 주어 존재. 『국어학』 67, 63-105.
- 목정수. 2013c. 『한국어, 보편과 특수 사이』. 서울: 태학사.
- 엄홍준. 2010. 구조적 조사도 핵인가: 임동훈(1991, 2008)을 중심으로. 『시학과 언어학』 19, 127-143.
- 연재훈. 2011. 『한국어 구문 유형론』. 서울: 태학사.
- 이정복. 2010. 상황 주체 높임 ‘-시-’의 확산과 배경. 『언어과학연구』 55, 217-246.
- 임동훈. 1991. 격조사는 핵인가. 『주시경학보』 8, 119-129.
- 임동훈. 1996. 현대 국어 경어법 어미 ‘-시-’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동훈. 1997. 이중 주어문의 통사 구조. 『한국문화』 19, 31-66.
- 임동훈. 2008. 다시 격조사는 핵이다. 『형태론』 10, 287-297.
- 임동훈. 2011. 담화 화자와 사회적 화자. 『한국어 의미학』 36, 39-63.
- 임홍빈. 1974. 주격 중출론을 찾아서. 『문법연구』 1, 111-148.
- 최기용. 2005. 현대 국어 통어론 연구. 김차균 외 『허웅 선생의 우리말 연구』, 263-294. 서울: 태학사.
- 최현배. 1963. 『우리말본』(3판). 서울: 정음문화사.
- 한정환. 2003. 격조사는 핵이 아니다. 『한글』 260, 149-182.
- 허웅. 1983. 『국어학: 우리말의 오늘·어제』. 서울: 샘문화사.
- 허웅. 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서울: 샘문화사.
- 허웅. 1999. 『20세기 우리말의 통사론』. 서울: 샘문화사.
- Bally, Ch. 1952. *Le Langage et la Vie* Geneva: Droz.
- Blake, B. J. 2004. *Case* (2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oomfield, L. 1933. *Language*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 Contini-Morava, E. and Y. Tobin (eds). 2000. *Between Grammar and Lexicon*. Amsterdam: John Benjamins.
- Corbett, G. G. et al. (eds). 1993. *Heads in Grammatical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oft, W. 2001. *Radical Construction Grammar: Syntactic Theory in Typological Perspectiv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uillaume, G. 1971. *Leçons de Linguistique 1948-1949, Série B, Psychosystématique du Langage: Principes, Méthodes et Applications (I)*. Québec,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et Lille; Paris, Klincksieck.
- Guillaume, G. 1973. *Principes de Linguistique Théorique de Gustave Guillaume*. Paris, Klincksieck et Québec,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et Paris, Klincksieck.

- Guillaume, G. 1974. *Leçons de Linguistique 1949-1950, Série A, Structure Sémiologique et Structure Psychique de la Langue Française II*. publiées par R. Valin, Québec: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et Paris, Klincksieck.
- Hagège, C. 2010. *Adposi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ewson, J. & V. Bubenik. 2006. *From Case to Adposition: The Development of Configurational Syntax in Indo-European Languages*. Amsterdam: John Benjamins.
- Hirtle, W. 2007. *Lessons on the English Verb*.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Hirtle, W. 2009. *Lessons on the Noun Phrase in English*.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Kurzon, D. & S. Adler (eds). 2008. *Adpositions*. Amsterdam: John Benjamins.
- Li, C. N. (ed.). 1976.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 Saussure, F. de 1972.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Ed. critique par T. de Mauro, Payot.
- Tesnière, L. 1959. *Éléments de Syntaxe Structurale*. Paris: Klincksieck.
- Valin, R. 1981. *Perspectives Psychomécaniques sur la Syntaxe* (Cahiers de Psychomécanique du Langage), Québec: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접 수: 2013년 11월 22일

수 정 필: 2013년 12월 19일

게재확정: 2014년 1월 16일

전자우편: mjsmok@uos.ac.kr